



해외통관애로

인도네시아 통상 및 통관환경

- 인도네시아 수입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

이민희 | PT. KGL INDONESIA 대리

E REPORT

인도네시아 통상 및 통관환경

-인도네시아 수입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이민희
PT. KGL INDONESIA 대리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인도네시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Sabar itu subur(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다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상충되어 인도네시아 진입을 단기적으로 성과만 바라보고 급하게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언어와 문화 등 나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자본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특히 까다로운 나라이기에 사전에 모든 서류와 품목을 확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 화물 선박(Ship back) 또는 폐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을 추천한다.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자원 부국, 젊은 노동력, GDP 1.1조 달러, 연 5%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포스코,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LG전자, 미원, 코린도 등 이미 많은 한국기업들이 먹거리를 찾아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가 비준되면서 대표적으로 철강, 플라스틱류, 자동차 부품류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와의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시 예상치 못한 수입규제와 높은 물류 비용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 및 대표적인 수입규제(BPOM, SNI, 할랄 인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매년 미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도 해당 인증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2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절차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사하고 있다.

Priority Channel(=MITA ; Mitra Utama)은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관세 사후납부 및 신속통관이 가능하다.

Green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 및 화물검사 없이 통관된다. Red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된다.

3 인도네시아 수입인증제도

1. BPOM 인증(식약청 인증)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식품, 화장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으로 수입하기 전에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슬림 인구가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며 수입업자가 BPOM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 제품의 경우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된다.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s://new-aero.pom.go.id> (의약품), <https://asrot.pom.go.id/asrot/> (전통의약품 및 건강식품), <https://e-reg.pom.go.id> (식품), <https://notifkos.pom.go.id> (화장품)을 통해 가능하다.

2. SNI 인증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내수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된 SNI Mandatory(통관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 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SNI 준비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 SNI 인증 비용에는 각 품목별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만 달러에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

3. 할랄(HALAL) 인증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할랄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45일 정도이나 실제로는 관련 기관에 신청 즉시 심사 및 계약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신할랄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는 강제표기라고 한다.

품목별 유예기간(식품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할랄이 아는 제품은 비할랄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20일부로 LPPOM(할랄 심사 기관)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에서 halal Decree로 명칭 변경하여 발급하고 있다.

할랄 인증서는 할랄 보장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4년이다.

● 할랄 인증 로고



구 할랄로고
2021년 39호 규정에 따르면 MUI 할랄로고 기존 사용자는 최대 2026년 2월까지 사용 가능



신 할랄로고
BPJPH 규정 2022년 40호 규정에서 신 할랄 로고 발표, 2023년 3월 1일부터 신 로고 사용적용

4 마무리하며

이렇게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절차와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인도네시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Sabar itu subur(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다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상충되어 인도네시아 진입을 단기적으로 성과만 바라보고 급하게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언어와 문화 등 나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자본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정부 규제, 결제 인프라 부족과 완전하지 않은 물류 환경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지만, 점차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특히 까다로운 나라이기에 사전에 모든 서류와 품목을 확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 화물 싹백(Ship back)* 또는 폐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을 추천한다.

* 수출 보낸 물품이 수입항에서 통관되지 않아 다시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것

